골 욕심 버리고 패스 호날두가 달라졌어요

통산 6회 유로 최다 출전 기록에 최다 도움 타이 달성
포르투갈 튀르키예에 3-0 완승… 유로2024 16강 확정

포르투갈 축구대표팀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공격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3일(한국 시간)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축구선수권대회 F조 2차전 튀르키예와의 경기에서 동료들에게 작전을 지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기적인 플레이의 대명사로 꼽히던 포르투갈의 골잡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확실히 달라졌다. 39세의 호날두가 결정적 골 찬스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고 어시스트를 택하며 포르투갈의 완승을 끌어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이것이 바로 '팀 정신'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포르투갈은 독일 스페인에 이어 2연승을 기록, 세 번째 16강 조기 진출에 성공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랭킹 6위 포르투갈은 23일(한국 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튀르키예와 2024 유럽축구연맹(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전반 21분 베르나르두 실바(맨체스터시티)의 선제골에 이어 28분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 후반 11분 브루노 페르난데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쐐기골로 3-0 완승을 거뒀다.

올해 39세인 호날두의 '이타심'과 함께 신구조화의 경기력으로 우승후보다운 전력을 과시했다. 19세의 나이로 유로 2004에 데뷔한 호날두는 20년 동안 통산 6회 유로 대회 출장으로 최다 출전 기록을 경신하는 놀라운 기량과 체력을 보임과 동시에 이번 대회에는 이기심마저 버려 유로2016에 이어 8년 만의 정상 탈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호날두는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보다 완벽한 찬스의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밀어줘 쐐기골을 끌어냈다. 호날두의 이타적인 팀 플레이였다. 골 대신 어시스트를 택한 호날두의 플레이로 포르투갈은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다.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은데 이어 2차전에서 완승을 챙긴 포르투갈은 2승(승점 6)점이 돼 조지아와의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1승1패(승점 3)가 된 튀르키예는 체코와 최종전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두면 16강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호날두는 대회 최다인 여섯 번째 출전한 유로2024에서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 유로대회 통산 최다인 8도움을 기록했다. 호날두는 유로에서 14골을 기록, 통산 득점에서도 1위에 올라있다.

1차전처럼 2차전 역시 포르투갈 팬들의 관심은 골잡이 호날두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에 집중됐다. 호날두는 체코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호날두는 1차전처럼 이날 역시 선발 출전해 튀르키예의 골문을 노렸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나선 튀르키예를 상대로 좀처럼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그럼에도 튀르키예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던 포르투갈이 선제골을 먼저 넣었다. 포르투갈은 전반 21분 왼쪽 측면을 파고들던 누누 멘데스(파리 생제르맹)가 문전 앞으로 보낸 땅볼 크로스가 오르쿤 코크취(벤피카)의 발을 맞고 굴절, 노마크로 있던 실바에게로 갔고, 이를 실바가 침착하게 왼발로 마무리했다.

리드를 잡은 포르투갈은 7분 뒤 상대의 황당한 실수로 인한 자책골로 차이를 더 벌렸다. 포르투갈의 역습 상황에서 주앙 칸셀루(바르셀로나)가 호날두에게 패스를 한다는게 그만 호흡이 맞지 않아 튀르키예 수비수 사메트 아카이딘(파나티나이코스)에게로 향했다.

전반을 2-0으로 마친 포르투갈은 후반 들어 공격의 고삐를 더욱 당겼다. 그리고 후반 11분 쐐기골이 터졌다.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가 튀르키예 선수들을 넘어 호날두에게 향했다. 순식간에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낸 호날두가 당연히 슈팅을 시도할 것으로 보였으나 호날두는 바로 옆에 있던 페르난데스를 확인한 뒤 패스를 건넸고, 페르난데스가 빈 골문을 향해 침착하게 차 넣었다. 골 대신 도움을 선택한 호날두의 선택이 돋보였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김하성 3시즌 연속 10홈런 '불방망이'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중인 김하성이 23일(한국 시간)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10호포를 터뜨려 3시즌 연속 두자릿 수 홈런기록을 이어갔다. AP=연합뉴스

통산 46호로 한국인 공동 3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이 세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 기록을 이어갔다.

김하성은 23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10호 홈런을 쳤다.

샌디에이고가 3-0으로 앞선 4회 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김하성은 상대 오른손 선발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의 6구째 시속 132㎞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타구는 시속 157㎞로 114m를 날아갔다.

김하성은 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 이후 14일 만에 홈런을 추가해 시즌 홈런 10개를 채웠다. MLB 진출 첫해인 2021년에 8홈런에 그쳤던 김하성은 2022년 홈런 11개를 쳤고, 지난해에는 17개의 아치를 그렸다.

MLB는 한 시즌 팀당 162경기를 치른다. 김하성은 올해 팀의 81번째 경기에서 10홈런을 쳐 개인 첫 MLB 20홈런 달성 가능성도 키웠다. MLB에서 3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친 한국인 타자는 추신수(현 SSG 랜더스)에 이어 김하성이 역대 두 번째다. 또한 MLB 개인 통산 홈런을 46개로 늘린 김하성은 이 부문 한국인 타자 공동 3위가 됐다. MLB 한국인 타자 최다 홈런 기록은 추신수(218홈런)가 보유하고 있다.

김하성은 2위 최지만(67홈런)에 이어 강정호(46홈런)와 함께 MLB 한국인 타자 개인 통산 홈런 공동 3위로 올라섰다.

김하성은 이날 7회 제이컵 유니스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전 안타를 만들면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도 작성했다. 김하성은 3타수 2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하며 팀의 6-4 승리에 한몫했다.

샌디에이고는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15에서 0.220(264타수 58안타)으로 올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테니스 권순우 '행운의 파리행' 티켓

앞 순위 선수들 빠져 '어부지리'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370위인 권순우(사진)가 7월 말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 출전권을 확보했다.

권순우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가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파리 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 출전권은 10일자 세계 랭킹을 기준 으로 정해진다. 상위 56명이 단식 본선 출전권을 갖게 되며 한 나라에 최대 4명이 나갈 수 있다.

권순우는 현재 세계 랭킹이 300위대지만 부상에 따른 보호 랭킹 80위가 적용된다. 10일 세계 랭킹 발표 시점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예비 명단에 있던 권순우는 이후 앞 순위에 있던 선수들이 일부 빠지면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로써 권순우는 2021년 도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가게 됐다. 권순우를 지도하는 유다니엘 코치는 최근 "이달 초 대구에서 열린 국제테니스연맹(ITF) 대구국제남자대회에 출전했다가 발목을 다쳤다"고 권순우의 최근 몸 상태를 설명하며 "7월 1일 개막하는 윔블던에 출전한 뒤 올림픽 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클레이코트 대회를 뛸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